

interpack 2023 참관 기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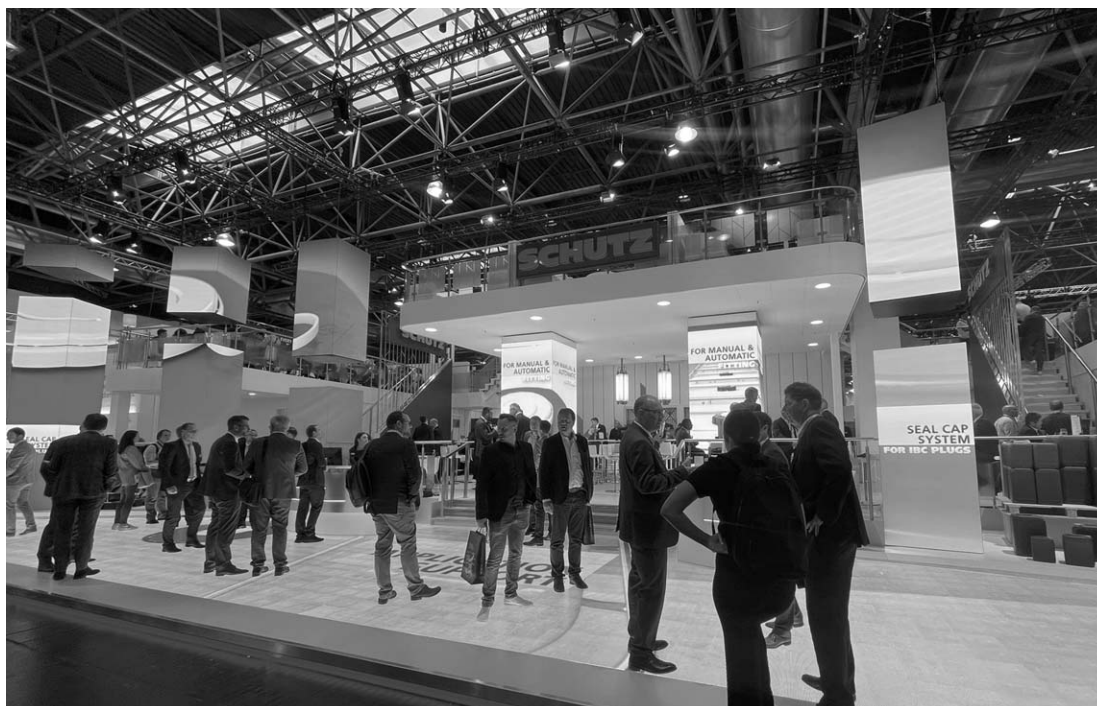
(2023.05.03.~2023.05.08.)

INTERPACK 2023 방문부터 쫄른 여행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interpack은 3년마다 개최되며, 세계 포장전시회 Top 5위 안에 꼽히는 유명한 전시회이다. 한국포장협회에서 좋은 기회로 좋은 분들과 함께 가는 기회가 생겼다. 같이 동행하신 분 중 전현수 대표님을 미리 공항에서 뵈어 이번 전시회의 관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 대표님은 “패키징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전시회에서도 그 모든 분야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업

계는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막상 자신이 속한 업계만 보려고 든다면 정말 실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전시회 전체를 보거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보는 포인트”라고 하셨다.

정말 인터팩 전시회는 작년에 방문한 튀르키예 전시회의 3~4배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우리와 같은 인쇄분야 뿐 아니라 포장하는 기계, 음식물을 가공하는 기계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 interpack 전시회 전경

참가하였고, 만약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돌아다녔다면 기억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정신이 없기도 했다. 이전 튀르키예 전시회에서는 터키어를 몰라 언어소통이 잘 안됐지만, 독일은 확실히 영어권이라 설명 및 대화가 편리한 장점도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이 코로나19 영향으로 6년 만에 개최됐다는 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래서 전시회 곳곳마다 인테리어도 눈에 띄고 마케팅 쪽으로도 배울게 많았다. 역시 선진국이라 그런지 깔끔하면서 명료한 디자인이 많고,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게 트렌드라는 것도 확실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 중 또 튀르키예와 다른 점은 회사의 카탈로그가 거의 대부분 QR코드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 종이를 아끼기 위해 그렇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호텔에서 친환경을 위해 일회용 슬리퍼 및 가운을 기본으로 주지 않는다. 쓰레기 비용과 세탁으로 인한 물 자원을 아끼자는 의미이다. 어떤 독일 슈퍼는 비닐봉투가 아예 없고 종이봉투만 비치되어 있었다. 나라마다 친환경에 대한 방법이 달라 흥미로웠다.

인터팩 전시회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고, 우리의 숙소는 버스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퀵른'에 있었다. 여행사 측에서는 뒤셀도르프의 호텔가격대가 비싸기에 저렴하면서 좋은 호텔을 찾기 위해 퀵른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전시장과 1시간 거리에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좋았다. 뒤셀도르프 관광 및 퀵른 관광까지 다 했기 때문이다. 마침 버스운전기사님이 베스트 드라이버라 차타고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고, 송진수 가이드님의 이야기까지 들으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이번 일정동안 저녁은 거의 현지식을 먹었는데, 그중 제일 맛있고 기억에 남는 건 맥주다. 독일은



▲ interpack 전시회 전경



▲ 한국포장협회와 함께 같이 참여하신 분들

맥주가 유명한데 그 중 도시마다 자신들의 특산맥주가 있다고 했다. 전시회가 열린 뒤셀도르프는 ‘알트(Alt)’ 맥주, 쾰른에서는 ‘켈시(Kolsh)’ 맥주를 만들며 양조장이 따로 있다. 쾰시는 200ml 밖에 안 되는데 5000원이나 했다. 가이드님께서 너무 작아서 원샷해야 할 정도라고 했지만 아까워서 3샷으로 나눠 마셨다. 어쨌든 각 도시마다 맥주가 따로 있고 그 도시에서는 그 맥주를 마셔야 음식점에서 눈치를 안준다고 한다. 그래서 열심히 쾰시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난다. 또한 음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다. 감자와 소시지밖에 없다는 말만 주구장창 들었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감자와 소시지마저 한국보다 맛있었다. 여행사에서 좋은 식당에만 데려가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식사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했다.

독일 여름은 백야여서 저녁 9시까지도 환했다. 6시쯤 저녁식사를 하고도 밝아서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지 않고 쾰른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라인강을 보고 쾰른 쌍둥이성당을 보고 사람 구경을 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카페나 바, 식당에는 삼삼오오 많이 모여 있었다. 독일도 일보다는 자유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구나 생각했다. 특히 독일은 운동에 진심이었다. 모든 운동은 클럽(소모임)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클럽은 작게는 지역 안에서, 크게는 전국까지 진행하여 개개인의 등수를 매긴다고 한다. 클럽에 들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탁구 등을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국가에서 누구나 운동에 대한 복지를 많이 주니까 국민건강에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패키징에 대한 미래 동향과 디자인적 요소, 독일에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함께 가신 분들도 새롭게 알게 되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나중에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